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and Ego-Identity of Middle-Aged Women

저자 (Authors)	오명옥, 고효정, 박청자 Myung Ok Oh, Hyo Jung Koh, Chung Ja Park
출처 (Source)	한국모자보건학회지 4(1) , 2000.1, 17-31 (15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4(1) , 2000.1, 17-31 (1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모자보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571149
APA Style	오명옥, 고효정, 박청자 (2000).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과의 관계. 한국 모자보건학회지, 4(1), 17-31.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114.71.5.213 2016/07/05 15:4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과의 관계

오명옥 · 고효정¹ · 박청자¹

포항선린병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¹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and Ego-Identity of Middle-Aged Women

Myung Ok Oh · Hyo Jung Koh¹ · Chung Ja Park¹

Pho-Hang Sunlin Hospital,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¹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crisis and ego-identity of middle-aged women and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and ego-identity. The study subjects included 558 married woman of 45~49 years old who resided in Kyungju, Pohang, and Daegu cities. Personal interview was conducted from August 1, to August 30, 1999.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Scale of Crisis which was developed by Farrell and Rosenberg(1981), Linn and Linn(1984), Radloff(1977) and modified by Kim(1988) and Scale of Ego-Identity which was developed by Dignan(1965), Sua(1975), Park(1996) and modified by Lee(1997).

The mean score of crisis scale(3.09 ± 0.58)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 ($p=0.004$), religion($p=0.041$), educational background($p=0.000$), length of marriage($p=0.015$), job($p=0.000$), possession of house($p=0.003$), housing pattern($p=0.000$), health condition($p=0.000$), menstrual condition($p=0.001$), and satisfaction on married life($p=0.000$). The mean score of ego-identity(3.27 ± 0.49)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p=0.006$), religion($p=0.000$), educational background($p=0.003$), job($p=0.000$), possession of house($p=0.005$), housing pattern($p=0.000$), health condition($p=0.011$), menstrual condition($p=0.031$), and satisfaction on married life($p=0.000$). The crisis and ego-identity showed a negative-correlation($r=-0.523$, $p=0.000$). In mutiple regression analysis ego-identity explained 30.4% of the variance of crisis and 39.7% of the variance together with satisfaction on married life, job, health condition, and housing patter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social conditions affect the crisis and ego-identity of middle-aged women. It is required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relieve crisis and improve ego-identity of middle-aged women. Further study is recommended to determine the time when middle-aged women feel crisis, kind of such a feeling, and how to relive crisis.

Key words : middle-aged women, crisis, ego-identit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년기 이후의 기간이 길어져서, 이 기간 동안 보다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최혜경, 1998). 여성이 장수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인생주기에서 중년기 이후의 인생은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송은영, 1991). 중년기 인구는 1960년대에 약 360만명이던 것이 1994년에는 약 83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1995년에는 949만명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 1960년 14.5%, 1985년 17.9%, 1995년 21.2%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1995).

중년기는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신체적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며(김명자, 1988), 생산기에서 비생산기로 전환됨에 따라 역할의 변화, 자아 정체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호르몬 감소와 같은 생리적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시기에 많은 생활사건, 스트레스, 노화과정의 시작과 함께 상황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체, 정신, 사회 문화적인 적응이 요구된다(이경혜, 1993). 또한 과거에는 중년기 여성을 보이지 않는 여성, 여성이 아닌 중성 그리고 별 흥미 없는 집단이라고 보았으나, 여권신장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중년기 여성의 삶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중년기 여성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이경혜, 1997).

Duvall과 Miller(1985)는 중년기를 '빈 보금자리 시기(empty-nest period)'라고 부르고 새로운 자각에 눈을 뜨는 시기로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Leshan(1973)은 여성의 중년기는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긴장과 갈등, 또는 상실감을 동반하는 점을 강조하여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middlence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녀의 독립이 시작되고 자녀 양육의 역할이 감소되며 가족의 구조가 재조직화되어 가는 과

정에서 심리적으로 분리감을 겪게 되며 이때에 가장 부각되어온 문제는 중년기의 위기감이다(김명자, 1988; 박난준, 1988; 박경숙, 1990; 신기영과 옥선화, 1991; 김은아, 1992). 중년기 여성의 심리구조에서 위기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Erikson(1959)이나 Jaques(1965)는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은 발달과정에 있어 불가피하며, 따라서 위기감을 경험한 후에야 성인기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위기감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특성들에 의하여 개인마다 다르게 위기감을 경험하는데, 그 중 자아 정체감에 의하여 위기감의 수준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들(Rubin, 1979; Thompson, 1980; Thoits, 1983; Whitbourne, 1986)은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 외에 이경혜(1997) 연구에서도 중년기 여성의 생리적 현상인 폐경 등으로 인해 중년기 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성장발달은 개인의 자아 정체감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자아 정체감이란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다(Erikson, 1968).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부가 중년기 위기감으로 정신적 갈등과 생활의 만족도를 낮게 느낄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가정생활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정희, 1996).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감 확립이 요청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

한편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중년기 여성의 우울과 자아 정체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자아 개념과 갱년기 증상, 중년기 위기감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및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적응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일부 개념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김명자, 1988; 박혜순, 1990; 김진희, 1991; 송은영, 1991; 이길자, 1991; 김은아, 1992; 김애순, 1993; 김정주, 1993; 김혜영, 1996; 강정희, 1996; 이경혜, 1997; 구경원,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과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을 완화시키고 자아 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정도를 확인한다.
- 2) 중년기 여성의 자아 정체감 정도를 확인한다.
- 3)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광역시, 경주시, 포항시에 거주하는 45~59세 기혼의 중년기 여성으로서, 지역별로 대구시 166명, 경주시 180명, 포항시 212명을 편의표출하여 총 5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
- 2)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은 여성
- 3)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지 않은 여성
- 4) 현재 질병으로 치료받지 않은 여성
- 5)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여성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 14문항, 위기감 측정 도구 11문항, 자아 정체감 측정 도구 20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 위기감 측정 도구

대상자들의 위기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위기감 척도는 중년기에 처한 느낌, 생활전반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질문하는 Farrel과 Rosenberg(1981)의 중년기 위기감 척도(Middle Life Crisis Scale), Linn과 Linn(1984)의 우울감 척도(Depression Scale), 그리고 Radloff(1977)의 우울감 척도(Depression Scale)를 모체로 하여 김명자(1988)가 개발한 위기감 측정 도구를 가지고,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동 수간호사 2인에게 내용을 검토하게 한 후,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11문항의 위기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요인은 일상적 무의미감, 제2요인은 현재생활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주었다. 이 도구는 Likert형 5점 척도로 각 문항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51~0.80이었으며 본 연구의 예비조사(N=30)에서는 0.63이었고 본 연구(N=558)에서는 0.69였다.

2) 자아 정체감 측정 도구

자아 정체감의 측정 도구는 Dignan(1965)의 자아 정체감 척도를 서봉연(1975)이 번안하고 박아청(1996)이 만든 한국형 자아 정체감 검사를 이경혜(1997)가 한국 중년기 여성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만든 도구를 가지고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동 수간호사 2인에게 내용을 검토하게 한 후,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20문항의 자아 정체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고 제1요인은 친밀성, 제2요인은 주도성, 제3요인은 목표지향성, 제4요인은 정체감 유예, 제5요인은 정체감 혼미, 제6요인은 자기수용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총 20문항 중 9개 문항은 긍정적, 11개 문항은 부정적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주었다. 이 도구는 Likert형 5점 척도로 각 문항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8이었으며 본 연구의 예비조사 (N=30)에서는 0.74였고 본 연구(N=558)에서는 0.80이었다.

3. 자료수집

1999년 6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포항시에 거주하는 45~59세 중년기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설문지 내용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문항검토, 문항흐름 및 용어 선택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본조사는 1999년 8월 1일부터 1999년 8월 30일 사이에 대구광역시, 경주시, 포항시에 거주하는 45~59세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였다.

대구광역시는 연구보조자가 직접 아파트나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경주시 D대학병원과 포항시 S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어머니들에게는 간호부의 동의를 구한 뒤 연구자가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수간호사는 간호사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간호사들이 각자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어머니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1주일 후에 수간호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외는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자가 직접 아파트나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800부 배부된 설문지 중 대구광역시 250부 중 200부(80.0%), 경주시 250부 중 214부(85.6%), 포항시 300부 중 248부(82.6%)가 회수되어 총 회수부수는

662부(82.7%)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04부를 제외한 558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적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특성에 따른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증으로는 Tukey를 사용하였다.

3) 대상자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4) 대상자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에 대한 주요 요인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방법(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연령, 종교, 교육정도, 결혼상태, 결혼기간, 가족수, 막내자녀, 직업, 근무형태, 가족 월평균 수입, 주택소유 유무, 주거형태, 건강상태, 월경상태,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45세에서 59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45세에서 49세가 전체의 54.7%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49.6 ± 3.83 세였다.

종교는 77.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38.6%, 결혼상태는 기혼이 91.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24.8 ± 8.79 년이었으며 범위는 5~40년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58)

특성	구분	실수(%)
연령(세)	45~49	305(54.7)
	50~54	173(31.0)
	55~59	80(14.3)
	평균±표준편차	49.60±3.83
종교	유	430(77.2)
	무	127(22.8)
교육정도	초졸 이하	87(15.7)
	중졸	175(31.6)
	고졸	213(38.6)
	대졸 이상	78(14.1)
결혼상태*	기혼	496(91.3)
	이혼	9(1.7)
	별거	6(1.1)
	사별	32(5.9)
결혼기간(년)	≤ 19	86(15.6)
	20~24	186(33.7)
	25~29	181(32.8)
	30 ≤	99(17.9)
	평균±표준편차	24.76±8.79
가족수(명)	≤2	17(3.0)
	3	50(9.0)
	4≤	491(88.0)
	평균±표준편차	4.60±1.18
막내자녀	초등학교 재학	37(6.9)
	중학교 재학	92(17.0)
	고등학교 재학	160(29.6)
	대학교 재학	146(27.0)
	대졸/미혼	82(15.2)
	결혼	23(4.3)
직업	무	281(50.6)
	유	274(49.4)
근무형태	전일제	98(17.7)
	시간제	176(31.7)
가족 월평균 수입(만원)	≤100	98(17.9)
	101~150	77(14.2)
	151~200	153(28.0)
	201≤	218(39.9)
	평균±표준편차	218.60±159.96
주택소유	자가	476(85.3)
	전세	63(11.3)
	월세	13(2.3)
	기타	6(1.1)
주거형태	아파트	240(43.1)
	단독주택	235(42.2)
	연립주택	73(13.1)
	기타	9(1.6)
건강상태	건강	203(36.4)
	보통	230(41.3)

표 1. 계속

특성	구분	실수(%)
월경상태	불건강	124(22.3)
	규칙적	240(45.0)
	불규칙	203(38.1)
	폐경	90(16.9)
결혼생활 만족도	만족	214(39.0)
	보통	235(42.8)
	불만	100(18.2)

* 무응답 제외

함께 살고 있는 가족수는 평균 4.60 ± 1.18 명이며, 막내자녀는 고등학교 재학이 29.6%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49.4%였다. 가족 월평균 수입은 218.6 ± 159.9 만원이었으며, 대상자의 주택 소유 유무를 살펴보면 자택을 가진 경우가 85.3%로 응답하였고,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43.1%, 단독주택이 42.2%, 연립주택 13.1%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36.4%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결혼생활은 39.0%가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월경상태는 45.0%가 규칙적이었으며 38.1%는 불규칙적이고 16.9%는 폐경상태였다.

2. 중년기 여성의 특성에 따른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 정도 차이

1) 중년기 여성의 하부 영역별, 문항별 위기감 정도
대상자의 하부 영역별 위기감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위기감 정도는 최소값 1.00점에서 최대값 5.00점의 범위이며 평균은 3.09 ± 0.58 점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 위기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일상의 무의미감(제1요인)은 평균 3.15 ± 0.61 점으로 나타났고, 현재 생활에 대한 견해(제2요인)는 평균 2.99 ± 0.79 점으로 나타나 일상의 무의미감이 위기감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의 무의미감에서 대상자의 문항별 위기감 정도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나의 주변 친구들은 중

표 2. 중년기 여성의 하루 영역별, 문항별 위기감 정도

(N=558)

영역별	문 항	평균±표준편차
일상의 무의미감 (제1요인)	나의 주변 친구들은 중년기 공허감과 허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3.58±1.03
	나는 우울함과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다.	3.50±1.04
	나는 가끔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행복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	3.34±1.13
	나는 지난 생활에 대하여 후회스러운 일이 많다.	3.32±1.15
	나는 근심과 걱정으로 깊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	2.90±1.32
	나는 남편과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2.77±1.05
	나는 자녀들이 다시 어렸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2.62±1.40
		3.15±0.61
현재생활에 대한 견해 (제2요인)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3.06±1.34
	나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이라는 생각이 든다.	3.03±1.17
	나는 현재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2.96±1.08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도전의식과 흥미를 느끼고 있다.	2.91±1.22
		2.99±0.79
전체	최대값 5.00 최소값 1.00	3.09±0.58

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

표 3. 중년기 여성의 특성에 따른 위기감 정도 차이

(N=558)

특성	구분	M(SD)	For t	p	Tukey
연령(세)	① 45~49	3.02(0.59)	5.70	0.004	③>①
	② 50~54	3.13(0.58)			
	③ 55~59	3.25(0.52)			
종교	① 유	3.06(0.60)	-2.05	0.041	
	② 무	3.19(0.52)			
교육정도	① 초졸 이하	3.19(0.57)	9.89	0.000	①②③>④
	② 중졸	3.17(0.58)			
	③ 고졸	3.09(0.57)			
	④ 대졸 이상	2.77(0.54)			
결혼상태	① 기혼	3.08(0.58)	0.84	0.467	
	② 이혼	3.13(0.77)			
	③ 별거	3.43(0.59)			
	④ 사별	3.15(0.57)			
결혼기간(년)	① ≤19	2.99(0.54)	3.52	0.015	④>②
	② 20~24	3.01(0.63)			
	③ 25~29	3.14(0.58)			
	④ 30≤	3.20(0.52)			
가족수(명)	① ≤2	3.18(0.69)	1.08	0.340	
	② 3	3.19(0.62)			
	③ 4≤	3.07(0.58)			
막내자녀	① 초등학교 재학	3.10(0.57)	1.48	0.194	
	② 중학교 재학	3.13(0.57)			
	③ 고등학교 재학	3.07(0.60)			
	④ 대학교 재학	3.00(0.62)			
	⑤ 대졸/미혼	3.13(0.53)			
	⑥ 결혼	3.32(0.59)			

표 3. 계속

특성	구분	M(SD)	For t	p	Tukey
직업	① 무	3.13(0.57)	1.80	0.072	
	② 유	3.04(0.60)			
근무형태	① 전일제	3.27(0.60)	4.85	0.000	
	② 시간제	2.91(0.56)			
가족 평균 월수입(만원)	① ≤100	3.14(0.62)	1.01	0.388	
	② 101~150	3.00(0.57)			
	③ 151~200	3.11(0.57)			
	④ 201≤	3.06(0.58)			
주택소유	① 자가	3.07(0.58)	4.78	0.003	②③>④
	② 전세	3.19(0.56)			
	③ 월세	3.50(0.50)			
	④ 기타	2.43(0.78)			
주거형태	① 단독주택	3.10(0.58)	10.41	0.000	②>①③
	② 연립주택	3.41(0.38)			
	③ 아파트	2.98(0.58)			
	④ 기타	3.00(1.06)			
건강상태	① 건강	2.95(0.61)	15.58	0.000	③>①②
	② 보통	3.08(0.57)			
	③ 불건강	3.32(0.49)			
월경상태	① 규칙적	2.99(0.58)	7.64	0.001	②③>①
	② 불규칙	3.19(0.55)			
	③ 폐경	3.17(0.55)			
결혼생활 만족도	① 만족	2.84(0.57)	39.07	0.000	②③>①
	② 보통	3.18(0.54)			
	③ 불만족	3.39(0.51)			

년기 공허감과 허탈감을 경험하고 있다”(3.58±1.03)가 가장 높았고, 자녀들이 다시 어렸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2.62±1.40)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생활에 대한 견해는 문항별 큰 차이는 없었다.

2) 중년기 여성의 특성에 따른 위기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위기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위기감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으로는 연령, 종교, 교육정도, 결혼기간, 근무형태, 주택소유 유무, 주거형태, 건강상태, 월경상태, 결혼생활

만족도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Tukey로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55~59세군(3.25±0.52)이 45~49세군(3.02±0.59)보다, 종교에서는 종교가 없는 군(3.19±0.52)이 종교가 있는 군(3.06±0.60)보다, 교육정도에서는 초졸이하군(3.19±0.57)이 대졸이상군(2.77±0.54)보다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30년이상군(3.20±0.52)이 20~24년군(3.01±0.63)보다, 근무형태는 전일제군(3.27±0.60)이 시간제군(2.91±0.56)보다, 주택소유 유무는 전세군(3.19±0.56), 월세군(3.50±0.50)이 자가군(3.07±0.58)보다, 주거형태는 연립주택군(3.41±0.38)이 단

표 4. 중년기 여성의 하부 영역별, 문항별 자아 정체감 정도

(N=558)

영역별	문 항	평균±표준편차
친밀성 (제1요인)	나는 모임에 나가면 가끔씩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3.63±1.07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다.	3.61±1.07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을 즐긴다.	3.51±1.04
	나는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3.37±1.12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3.36±1.15
		3.50±0.78
주도성 (제2요인)	나는 다른 사람들이 권해도 내가 싫은 일은 안한다.	3.35±1.20
	나는 어떤 일이 싫을 때는 분명히 싫다고 말한다.	3.33±1.12
	나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3.32±1.09
	나는 나이 많은 어른의 말씀이라도 틀렸다고 생각되면 틀렸다고 말한다.	3.11±1.19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2.47±1.02
		3.11±0.99
목표지향성 (제3요인)	나는 계획표를 세우면 대체로 실천하는 편이다.	3.34±0.95
	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3.29±1.03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3.03±1.07
		3.22±0.75
정체감 유예 (제4요인)	나는 미래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다.	3.27±1.05
	나는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3.21±1.08
	나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3.13±1.11
		3.20±0.81
정체감 혼미 (제5요인)	나는 가끔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3.14±1.08
	나는 가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3.09±1.12
		3.11±0.78
자기수용 (제6요인)	나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4.09±1.02
	나는 내 약점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다.	2.72±1.14
		3.41±0.72
전체	최대값 5.00 최소값 2.00	3.27±0.49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

독주택군(3.10 ± 0.58), 아파트군(2.98 ± 0.58)보다 위
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불건강군(3.32 ± 0.49)이 건강군(2.95 ± 0.61)보다, 월경상태는 불규칙군(3.19 ± 0.55), 폐경군(3.17 ± 0.55)이 규칙군(2.99 ± 0.58)보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불만족군(3.39 ± 0.51)이 만족군(2.84 ± 0.57)보다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중년기 여성의 하부 영역별, 문항별 자아 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자아 정체감 정도는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소값 2.00점에서 최대값 5.00점의 범위이며 평
균은 3.27 ± 0.49 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자아 정체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친밀성
(3.50 ± 0.78)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자기수
용(3.41 ± 0.72), 목표지향성(3.22 ± 0.75), 정체감 유
예(3.20 ± 0.81), 주도성(3.11 ± 0.99), 정체감 혼미
(3.11 ± 0.78)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문항별 자아 정체감 정도는 자기수용 중
“나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4.09 ± 1.02)가 가
장 높았고, 주도성 중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
기가 어렵다”(2.47 ± 1.0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중년기 여성의 특성에 따른 자아 정체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아 정체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5
와 같이 나타났다.

자아 정체감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으로는 연령, 종교, 교육정도, 근무형태, 주택소유
유무, 주거형태, 건강상태, 월경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표 5. 중년기 여성의 특성에 따른 자아 정체감 정도 차이
(N=558)

특성	구분	M(SD)	Fort	p	Tukey
연령(세)	① 45~49	3.31(0.50)	5.22	0.006	①>③
	② 50~54	3.26(0.47)			
	③ 55~59	3.11(0.50)			

표 5. 계속

특성	구분	M(SD)	Fort	p	Tukey
종교	① 유	3.32(0.49)	3.80	0.000	
	② 무	3.13(0.50)			
교육정도	① 초졸 이하	3.27(0.50)	4.75	0.003	④>①,②,③
	② 중 졸	3.19(0.47)			
	③ 고 졸	3.26(0.49)			
	④ 대졸 이상	3.44(0.50)			
결혼상태	① 기혼	3.27(0.49)	0.81	0.487	
	② 이혼	3.25(0.59)			
	③ 별거	3.21(0.45)			
	④ 사별	3.13(0.52)			
결혼기간(년)	① ≤19	3.26(0.46)	2.13	0.095	
	② 20~24	3.34(0.51)			
	③ 25~29	3.22(0.47)			
	④ 30≤	3.23(0.54)			
가족수(명)	① ≤2	3.33(0.46)	0.11	0.899	
	② 3	3.26(0.59)			
	③ 4≤	3.27(0.49)			
막내자녀	① 초등학교 재학	3.28(0.40)	1.85	0.101	
	② 중학교 재학	3.19(0.50)			
	③ 고등학교 재학	3.26(0.52)			
	④ 대학교 재학	3.36(0.45)			
	⑤ 대졸/미혼	3.19(0.54)			
	⑥ 결혼	3.27(0.54)			
직업	① 무	3.26(0.48)	-0.22	0.824	
	② 유	3.27(0.52)			
근무형태	① 전일제	3.27(0.51)	-4.35	0.000	
	② 시간제	3.37(0.49)			
가족의 평균 월수입(만원)	① ≤100	3.30(0.51)	0.86	0.457	
	② 101~150	3.33(0.48)			
	③ 151 - 200	3.23(0.48)			
	④ ≥201	3.26(0.50)			
주택소유	① 자가	3.28(0.48)	4.28	0.005	④>①,②,③
	② 전세	3.17(0.54)			
	③ 월세	3.05(0.53)			
	④ 기타	3.87(0.53)			
주거형태	① 단독주택	3.31(0.48)	10.96	0.000	①,③>②
	② 아파트	3.32(0.49)			
	③ 연립주택	2.96(0.40)			
	④ 기타	3.29(0.79)			
건강상태	① 건강	3.35(0.54)	4.54	0.011	①>③
	② 보통	3.24(0.57)			
	③ 불건강	3.19(0.49)			
월경상태	① 규칙적	3.31(0.48)	3.50	0.031	①>②
	② 불규칙	3.18(0.49)			
	③ 폐경	3.28(0.51)			
결혼생활 만족도	① 만족	3.42(0.48)	18.31	0.000	①>②,③
	② 보통	3.20(0.46)			
	③ 불만족	3.10(0.50)			

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Tukey로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45~49세군(3.31 ± 0.50)이 55~59세군(3.11 ± 0.50)보다,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군(3.32 ± 0.49)이 종교가 없는 군(3.13 ± 0.50)보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군(3.44 ± 0.50)이 초졸이하군(3.27 ± 0.50)보다, 자아 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시간제군(3.37 ± 0.49)이 전일제군(3.27 ± 0.51)보다, 주택소유 유무는 자가군(3.28 ± 0.48)이 전세군(3.17 ± 0.54), 월세군(3.05 ± 0.53)보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군(3.31 ± 0.48)과 아파트군(3.32 ± 0.49)이 연립주택군(2.96 ± 0.40)보다 중년기 여성의 자아 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군(3.35 ± 0.54)이 불건강군(3.19 ± 0.49)보다, 월경상태는 규칙군(3.31 ± 0.48)이 불규칙군(3.18 ± 0.49)보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만족군(3.42 ± 0.48)이 불만족군(3.10 ± 0.50)보다, 중년기 여성의 자아 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 관계

대상자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6과 같다.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은 역상관관계($r = -0.523$, $p = 0.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아 정체감 중 목표지향성($r = -0.502$, $p = 0.000$)이 위기감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체감 유예($r = -0.369$, $p = 0.000$), 주도성($r = -0.359$, $p = 0.000$), 친밀성($r = -0.341$, $p = 0.000$), 정체감 혼미($r = -0.293$, $p = 0.000$), 자기수용($r = -0.176$, $p = 0.000$)의 순으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 정체감 및 중년기 여성의 특성이 위기감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 표 7과 같다. 다중회귀 모형의 총 설명력이 39.7%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변수 중 자아 정체감이 30.4%로 가장 설명

력이 높게 나타났다.

위기감 및 중년기 여성의 특성이 자아 정체감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8과 같다. 다중회귀 모형의 총 설명력이 31.7%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변수 중 위기감이 30.5%로 가장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의 상관관계 (N=558)

구분	위기감	영역별	
		일상의 무의미감	현재생활에 대한 견해
자아 정체감	$r = -0.523$ ($p = 0.000$)	$r = -0.459$ ($p = 0.000$)	$r = -0.453$ ($p = 0.000$)
친밀성	$r = -0.341$ ($p = 0.000$)	$r = -0.326$ ($p = 0.000$)	$r = -0.259$ ($p = 0.000$)
주도성	$r = -0.359$ ($p = 0.000$)	$r = -0.218$ ($p = 0.000$)	$r = -0.431$ ($p = 0.000$)
목표지향성	$r = -0.502$ ($p = 0.000$)	$r = -0.423$ ($p = 0.000$)	$r = -0.458$ ($p = 0.000$)
정체감 유예	$r = -0.369$ ($p = 0.000$)	$r = -0.371$ ($p = 0.000$)	$r = -0.258$ ($p = 0.000$)
정체감 혼미	$r = -0.293$ ($p = 0.000$)	$r = -0.238$ ($p = 0.000$)	$r = -0.287$ ($p = 0.000$)
자기수용	$r = -0.176$ ($p = 0.000$)	$r = -0.167$ ($p = 0.000$)	$r = -0.414$ ($p = 0.001$)

표 7.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의 다중회귀분석

변수	R ²	Beta	F	p
자아 정체감	0.304	-8.984	128.808	0.000
결혼생활 만족도	0.359	4.459	82.378	0.000
근무형태	0.379	3.125	59.596	0.002
건강상태	0.387	2.193	46.106	0.029
주거형태	0.397	-2.180	38.310	0.030

표 8.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의 다중회귀분석

변수	R ²	Beta	F	p
위기감	0.305	-0.506	130.353	0.000
결혼생활 만족도	0.317	-0.117	68.538	0.026

고찰

본 연구에서 위기감 정도는 전체평균 3.09점(최대점 5점)으로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강정희(1996)의 연구결과에서 위기감 정도가 평균 2.97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7년 말 불어닥친 I. M. 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관리체제 이후 가장의 실직으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붕괴되어 다른 가족원들 특히 부인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어서 심리적 부담감(최혜경, 1998)이 가중되어 위기감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문항별 위기감 정도는 나의 주변 친구들은 중년기 공허감과 허탈감을 경험하고 있다(3.58 ± 1.03)가 가장 높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명자(198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자아에 대한 생각과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면서 심리적 허탈감을 느끼며, 심리적 신체적 변화와 부모로서의 역할 상실과 남편에게도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지며, 빈 등지를 실감하여 심리적으로 균형이 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정도는 연령, 종교, 교육정도, 결혼기간, 근무형태, 주택소유 유무, 주거형태, 건강상태, 월경상태,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위기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55~59세군이 45~49세군보다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40~45세군이 가장 위기감이 높다고 한 Levinson(1978)의 견해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거나 김명자(1988), 강정희(1996), 신기영(199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Lifton(1979), Colarusso와 Nemiroff(1983)는 50~60세군의 위기감이 35~40세군보다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중년기 여성이 느끼는 위기감 정도가 40세를 전후하여 약간 높아졌다가 50세를 전후하여 위기감이 더욱 심화된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대학 입시교육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 나가는 시기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고(김애순, 1993), 부모-자녀 관계가 미국사회보다 비독립적이고 종속적이며 애착이 미분화되어 있어 자녀들이 떠나가는 '빈 등지 시기'에 와서 위기감이 더욱 심각하게 표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교와 교육정도에서도 위기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종교가 있는 군보다 종교가 없는 군이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종교가 없는 집단이 위기감 수준이 더욱 높았다고 주장한 김애순(1993) 보고와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이 불교를 믿는 여성의 위기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명자(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종교참여가 높은 여성일수록 위기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종교활동 및 참여가 가족단위로 빈번히 활발하게 유지되므로 가족원간의 갈등이 보다 쉽게 극복될 수 있으며 응집력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도가 초졸이하군이 대졸이상군보다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이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는 김명자(1988), 신기영(1991), 김애순(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위기감을 느끼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회가 부족하고 문제 인식이 미흡하여 초졸이하군이 대졸이상군보다 상대적으로 위기감 정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결혼기간에 따라서 위기감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기간이 길수록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중년기 여성은 결혼 초기에는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으나 막내자녀가 집을 떠나는 시점인 중년기 여성은 빈 등지 중후군으로 인생의 의미가 공허하다고 느껴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근무형태에 따라 위기감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일제군이 시간제군보다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essler와 McRae(1982) 및 이

경혜(1997)는 직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은 가사와 양육책임이 없는 기혼여성과 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진 여성에게서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전일제군이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사, 양육책임 및 자신의 노후문제 등으로 부담감을 느껴 더욱더 위기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기의 직업활동은 봉급을 받는 것 이상의 삶의 방식이며 개인의 생활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유지로 생각한다. 전일제는 가족부양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자녀교육이고, 집에 오면 여성으로서의 책임인 가사를 부담하여야 하고, 남편과의 대화시간도 많이 갖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므로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위기감 정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주택소유 유무 및 주거형태에 따라서 위기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세군, 월세군이 자가군보다 위기감이 높았으며, 연립주택군이 단독주택군, 아파트군에 비하여 위기감이 높았다. 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중년기 적응에 관한 Farrel과 Rosenberg(1981)의 연구의 하류계층이 중류나 상류계층보다 정신건강이 낮았으며, 자원의 결핍이 높아 중년기 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강정희(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위기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불건강군이 건강군보다 위기감이 높게 나타나서 김명자(1988), 김애순(1993)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위기감 수준이 더 높았다.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자신의 사망을 생각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커지며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이 큰 시기이므로 건강상태는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사료된다.

월경상태에 따라서 위기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월경상태의 불규칙군이 규칙군보다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자(1988)의 연구결과에서 폐경이나 폐경경과 했수가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50세를 전후하여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폐경은 신체적,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을 수반한다고 하는 전통적 견해와 상반되나, 폐경기에 처한 중년기 여성들의 우울증 내지 심리적 신체적 증세는, 월경의 중단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전단계의 발달과업과 관련이 있으며, 전단계 과업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느끼는 여성은, 폐경기에 이르러 부모역할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넓은 사회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는 Lenon(1980)의 견해와 일치한다.

결혼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위기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의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침체감, 무력감, 절망, 불행감 및 인생의 지리함 등의 정서적 위기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 김애순(1993)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자녀의 성장으로 부모역할이 감소되고 상호 공통의 경험과 활동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이며 결혼생활을 통해 심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배우자의 지지는 중년기 여성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건강의 원인적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고효정, 1996). 이처럼 결혼생활의 만족은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불만족한 결혼생활은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 정체감 정도는 전체평균 3.27점(최대점 5점)으로 자아 정체감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아 직접 비교는 하기 어렵지만 김은아(1992)의 연구에서는 자아 정체감 평균이 3.59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영역별 자아 정체감 정도는 친밀성(3.50 ± 0.78)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자기수용(3.41 ± 0.72), 목표지향성(3.22 ± 0.75), 정체감 유예(3.20 ± 0.81), 주도성(3.11 ± 0.99), 정체감 혼미(3.11 ± 0.78)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자아 정체감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자기수용 중 “나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4.09 ± 1.02)라는 문항이고 자아 정체감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주도성 중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다”(2.47 ± 1.02)로 나타났다. 긍정적이고 높은 자

아 정체감을 가진 중년기 여성은 자아를 어떠한 전환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판단을 적용시킬 수 있으나(배제현, 1984), 공허감, 허탈감, 우울함, 허전함 등의 부정적인 견해들은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을 더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정체감 정도는 연령, 종교, 교육정도, 근무형태, 주택소유 유무, 주거형태, 건강상태, 월경상태,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자아 정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5~49세군이 55~59세군보다 자아 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은아(1992)의 결과와는 달랐으나 중년기 여성은 40대의 부모 자녀 갈등기보다는 50대의 빈 둥우리에 임박한 시기가 더욱 심각한 위기감을 경험하며(김애순, 1993),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결혼 년수가 거듭될수록 감소하여(Blood와 Wolfe, 1960), 45~49세군이 55~59세군보다 자아 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기 여성의 자아 정체감은 종교, 교육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종교가 있는 여성이 종교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자아 정체감이 높게 나타나서 선행 연구(Stagner, 1974; Clair와 Day, 1979; 신태수, 1986)와 일치하였으며, 종교의 유형에는 관계없이 신앙심 자체만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정도에 있어서 대졸이상군이 초졸이하군보다 자아 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정주(1993), 김혜영(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추구하고 능력개발 욕구가 높고 자신을 타인과 구별된 개체로 인지하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 자극받아 왔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근무형태에서는 시간제군이 전일제군보다 자아 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직업역할과 다른 역할들의 병행은 다중역할에서 오는 위기감이나 긴장으로 낮은 자존감과 자아 정체감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Gove와 Tudor(1973), Gove(198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는 자

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주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자아 정체감이 달라진다고 사료된다.

주택소유 유무는 '자가'군이 '전세'나 '월세'군보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군과 아파트군이 연립주택군보다 중년기 여성의 자아 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상태가 좋은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정옥례(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에서 건강군과, 결혼생활이 만족할 때 중년기 여성의 자아 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은 건강하고 질병이 없을 때 자아 정체감이 높았다는 김혜영(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월경상태는 규칙군이 불규칙군보다 중년기 여성의 자아 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relllich와 Bieber(1958)는 여성에게 있어서 생식기능, 월경기능, 성적 기능이 심리적으로 여성상의 상징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능력의 상실은 여성상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Galloway(1975)도 중년 여성들이 더 이상의 자녀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능력 상실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여성다움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심하면 우울증까지 초래한다는 견해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김혜영(1996)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월경상태가 규칙군에서 불규칙을 거쳐 폐경이 되면서 점차 자아 정체감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견해이다.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을 낮추고 자아 정체감을 높이려면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와 가사노동 분담, 위기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자기 삶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알아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은 유의한 부정상관관계($r = -0.523$, $p = 0.000$)가 있었다. 즉 위기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 정체감 수준은 낮았다. 이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에 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김명자, 1988; 김애순, 1993; 이경혜, 1997). 김명자(1988)는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일, 외모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높을수록 위기감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이경혜(1997)는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은 부정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입증하였고, 김애순(1993)은 본인들이 최고한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 수준이 다양하다고 보고하였다.

그외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Thoits(1983)와 Whitbourne(1986)은 자아 정체감이 성공적으로 발달한 개인은 효율적인 심리적 적응을 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비해서 자아 정체감 혼미가 있는 여성은 초조감과 실망감을 느낀다고 보고함으로써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입증하였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높은 사람이 성공적인 중년기를 맞이하는 반면, 젊은 시절부터 설정해 왔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절망감에 빠지며 따라서 높은 위기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Tamir, 1982).

이상에서 실행 연구 결과들은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 수준간에 부정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위기감을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재고를 통해 삶의 구조를 재조정하려는 의도 유무가 중요한 문제이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 개념을 가진 중년기 여성은 자아 정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인을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감소시키고 자아 정체감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며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감소와 자아 정체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경주시, 포항시에 거주하는

45~59세의 기혼 중년기 여성 558명이 편의표출 되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1999년 8월 1일부터 1999년 8월 30일까지였다.

위기감 측정 도구로는 김명자(1988)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0.69였다. 자아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1996)이 만든 한국형 자아 정체감 검사를 이경혜(1997)가 한국의 중년기 여성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0.80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서술통계, Pearson correlation,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및 Tukey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위기감 정도는 평균 3.09 ± 0.58 점이며 연령($p=0.004$), 종교($p=0.041$), 교육정도($p=0.000$), 결혼기간($p=0.015$), 근무형태($p=0.000$), 주택소유 유무($p=0.003$), 주거형태($p=0.000$), 건강상태($p=0.000$), 월경상태($p=0.001$) 및 결혼생활 만족도($p=0.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상자의 자아 정체감 정도는 평균 3.27 ± 0.49 점이며 연령($p=0.006$), 종교($p=0.000$), 교육정도($p=0.003$), 근무형태($p=0.000$), 주택소유 유무($p=0.005$), 주거형태($p=0.000$), 건강상태($p=0.011$), 월경상태($p=0.031$) 및 결혼생활 만족도($p=0.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은 유의한 역상관관계($r=-0.523$, $p=0.000$)를 나타내었다.

4. 위기감에 자아 정체감이 30.4%의 설명력을 가졌고 그 다음은 결혼생활 만족도, 근무형태, 건강상태, 주거형태 순으로 총 39.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5. 자아 정체감에 위기감이 30.5%의 설명력을 가졌고 그 다음은 결혼생활 만족도이며 총 31.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 수

준간에는 역상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년기 여성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들이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간호학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위기감 대처방법과 자아 정체감을 증진시키는 간호전략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효정.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어머니로서의 자아 정체감 형성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강정희.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적응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구경원. 중년 여성의 무용프로그램 참여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애순.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 중년기 위기의 시기확인 및 발달과정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은아. 중년기 부인의 자아 정체감과 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정주. 중년 여성의 자아 정체감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진희. 자아 정체감 수준에 따른 중년기 어머니와 청년기 딸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혜영. 중년기 여성의 우울과 자아 정체감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경숙.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박난준. 중년 여성의 자아개념과 갱년기증상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배재현. 자아 - 아이덴티티와 자기 존중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박아청.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96;15(1)
- 박혜순.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생활사건과 정신건강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서봉연. 자아 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5
- 송은영. 중년 여성의 상태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신기영, 옥선화.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1;9(1)
- 신기영.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신태수. 성인기의 자아 정체감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이경혜. 중년기 여성의 폐경경험연구. 한국여성학 1993;8
- 이경혜. 중년 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 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길자. 일부지역 중년기 여성의 자아 개념과 우울 및 자각증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정옥례.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부부관계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최혜경. 실직자 가정의 가족생활.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1998;34-49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 Blood RO, Wolfe DM.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 of married living. The Free Press, Illinois, 1960
- Colarusso CA, Nemiroff RA. Adult development. Plenum Press, New York, 1983
- Clair S, Day HD. Ego identity status and value among high school females. Journal of Yourth and

- Adolescence 1979:8
- Dignan SM.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1
- Drellich MG, Bieber I. The psychologic importance of the uterus and its function. *Journal of Nerv and Ment and Di* 1958:126, 322-326
- Duvall EM, Miller, BC.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6th ED). Harper & Row, New York, 1985
-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9
- Erikson EH. Identity. *Psychosocia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1968:7:61-65
- Farrel MP, Rosenberg SD. Men at midlife. Simon and Schuster, Boston, 1981
- Galloway K. The middle years: The change of lif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75:75(6)
- Gove WR. Mental illness and psychiatric treatment among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80:4:345-362
- Gove WR, Tudor J. Adult sex role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73:78:812-835
- Jaques E.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 Analysis* 1965:46:502-514
- Kessler R, McRae J.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3:47:216-226
- Lenon MC. Psychological reaction to menopause: A sociological study. The Columbia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80
- Leshan E. The wonderful crisis of middle age. Warner Paper back Library, New York, 1973
- Levinson D. The midlife transition: A period in adult psychosocial development. *Psychiatry*, 1978:40:99-112
- Lifton RJ. The broken connection. Simon and Schuster, New York, 1979
- Linn MW, Linn BS. Self-evaluation of life function scale. *Journal of Gerontology* 1983:39(5):603-612
- Radloff LS.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7:1(3):385-401
- Rubin LB. The empty nest: Beginning or ending competence and coping during adulthood.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London, 1980
- Stagner R. Psychology of personality(4th Ed). McGraw-Hill Inc, New York, 1974
- Tamir LM. Men at middle ag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1982:64:47-56
- Thoits P.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3:48:174-187
- Thompson MJ. Identity attainment in midlife females: An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80
- Whitbourne SK. The me I know: A study of adult identity. Spriner-Verlag, New York, 1986